

변관식, 〈단발령〉, 1974

/ 박혜미

한국 근현대 동양화단의 거장, 소정 변관식. 그는 ‘금강산의 화가’로 통했다.

금강산의 장엄한 풍경과 단발령 고개를 넘는 노인들을 한 폭에 담은 〈단발령〉은

소정 말년의 대표작이다.

저 멀리, 기세 있게 솟은 산봉우리가 힘준해 보인다. 연이은 뾰족 봉우리들이 병풍을 두르듯 하여 화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단발령 고개는 물길처럼 S자로 휘어 뻗었다. 얇은 먹으로 설채(設彩)하여 골산의 피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무수히 반복적으로 찍은 호초점(胡椒點)이 절묘한 조형 효과를 만든다. 좋은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금강산으로 향하는 노인들이 한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시선이 안쪽으로 이끌려 위로 향하는 인상도 준다.

〈단발령〉은 1974년 제작된 소정 변관식(1899-1976)의 대표작이자, 금강산을 소재로 한 산수화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이다. 단발령 고개에서 저 멀리 구름 너머로 솟아오른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는 그야말로 장관이어서, 조선 후기 진경산수 화가인 정선(1676-1759), 이인문(1745-1824) 등도 그곳을 그린 걸작을 남겼다. 변관식 또한 ‘내금강산 하운출곡지도(內金剛山 夏雲出谷之圖)’라는 화제를 붙이면서 고개 너머 구름 속으로 솟아오른 금강산을 한껏 강조하고 있다.

변관식은 ‘금강산의 화가’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금강산을 자주 그렸다. 그는 금강산의 기개를 적묵(積墨)과 파묵(破墨) 기법으로 박진감 있게 표현했다. 작가의 회고에 의하면, 그는 8년 동안

금강산을 사생하고 30년 이상 금강산의 다양한 명소들을 변주하며 그렸다고 한다. 그의 작품 세계에서 금강산이란 하나의 소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정 변관식 회화의 모든 요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금강산과 자신이 ‘불가분의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산수화는 금강산뿐이라고 하지만 사실 금강산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은 내가 평생 그려도 다 못 그릴 그런 장엄미를 갖춘 것이다. 나는 금강산의 어느 한 부분을 그릴 때마다 그곳의 산세는 물론 바위의 생김생김과 물의 흐르는 방향과 물살의 세기까지 기억하며 그린다. 8년이란 세월을 해동 제일의 산을 찾고 그를 30여 년간 그렸으니 그와 나는 이제 불가분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 소정 변관식

〈단발령〉은 1974년 현대화랑에서 열린 그의 생전 마지막 개인전인 《소정 동양화전》을 위해 제작, 출품되었다. 당시 변관식은 노환으로 거의 붓을 놓다시피 한 상태였고, 대부분 시간을 좋아하는 술을 마시며 보내곤 했다. 박명자 회장은 ‘큰 화실에서 대작을 작업하는 게 소원’이라던 그의 뜻을 이뤄주기 위해 소정의 부인과 합심하여 정릉의 한 절에서 작업실을 마련했다. 그가 술을 멀리하고 작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이다. 변관식은 이 절에서 6개월을 보내며 창작에 전념하였다. 그 결과 그는 70년대 대표작으로 꼽히는 〈단발령〉과 〈외금강 삼선암〉 등을 완성했다.

이때 그려진 작품에는 먹선을 다루는 작가 특유한 기법이 잘 드러난다. 오랜 시간 금강산을 유람하고 그림을 그려 바위 하나까지 기억해낼 수 있다는 그의 말처럼 〈단발령〉은 그 생생한 산세의 표현을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부감법으로 위에서 조망하는 듯한 시선을 유도하여 관람자에게 시원한 화면 전개를 선사한 것이나, 고개 너머 금강산 사이에 남긴 흰 안개 띠가 화면 속 박진감을 자아낸다는 점에서 그렇다.

소정 변관식은 유명한 서화가 조석진(1853-1920)의 외손자로 조선총독부가 관립으로 설립한 공업전습소의 도기과를 거쳐, 조석진이 강사로 활동하던 서화미술회 강습소에서 동양화를 공부했다. 그 후 일본으로 유학하여 남화의 대가인 고무로 스이운(小室翠雲, 1874-1945)에게 사사했다. 1923년 청전 이상범(1897-1972)과 함께 동연사를 조직했고, 서화협회전에 여러 차례 작품을 출품했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도 여러 번 입선했다. 해방 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심사위원과 추천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초기에 잠시 참여한 것 외에는 가담하지 않고 평생 제도권 미술계 바깥에서 아인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산수화를 주로 제작했다. 초기에는 조석진과 안중식(1861-1919)의 영향을 받은 남종, 북종화를 절충한 화풍의 그림을 그렸다. 1937년 전국을 유람하며 실경 산수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를 토대로 적묵법(積墨法)과 파선법(破線法)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형성한다. 현장 사생을 기초로 산수화를 그렸기 때문에 관념성은 배제되고 현장감이 넘친다. 다각적 방향에서 시점을 종합하여 압축적인 구성을 선보인다. 전반적으로 힘차고 굳센 이미지를 주는 것이 그의 작품 특징이다.

“소정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 전통 위에, 일본의 신남화풍, 북송대 산수와 석도의 풍격까지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흡수하였으니 그 결과물은 항상 소정 자신의 것으로 변모시켰다. (중략) 젊은 시절 산수 풍류를 통해 몸으로 새긴 금강산을 비롯한 한국의 산천에의 기억은 담백한 적묵과 특유의 힘찬 건필의 직찰준(直擦皴), 농묵의 묵점으로 표출되어, 여타의 어떤 작가도 다다를 수 없는 ‘기운생동(氣韻生動)’의 경지로 우리를 이끈다. 이는 당시의 대륙 중국이나, 대만,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게와 울림을 갖춘 소정의 먹의 세계, 한국적 수묵화의 경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

1974년 현대화랑에서 열린 전시 이후, 소정 변관식의 작품에 대한 미술계의 평가가 본격화됐다. 짧고 두꺼운 먹 선을 여러 번 겹쳐 쌓은 검고 어두운 느낌이 드는 그의 산수화는 이전에는 ‘반골’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기법으로 완성된 산수화를 추구했다. 이대원(1921-2005) 작가가 언급한 것처럼, 그의 산수화는 “굳센 선의 힘과 중후감이 압도적이며 풍우에 시달린 한국 화강암석의 표피와 암준을 누구보다도 적절히 표현한 것”²⁾이었다. 불필요한 기교도 없고 소탈하게 한국의 흙을 그대로 표현한 그의 붓질을 두고 이대원은 ‘소정준(小亭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소정 변관식, 그는 1976년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났지만, 한국 근현대 동양화단의 거장으로 남게 되었다.

- 1) 이주현, 「분출하는 먹의 생명력-소정 변관식의 산수화」, 『소정 변관식』, 마로니에북스, 2019.
- 2) 이대원, 『小亭東洋畫展』, 갤러리현대, 1974.